

개인전 2025 책 속의 풍경, 그림 속의 이야기 (도보책방, 남원)
 2024 아이(I) (송정작은미술관, 광주)
 2022 또 다른 시작 (주안미술관, 광주)
 2020 Pure evil (예술공간집, 광주)
 2019 갤러리S 손연우 초대전 (갤러리S, 광주)
 2018 純粹失調:순수실조 (갤러리리채, 광주)

레지던시 2025 지구발전오라_다오라 스테이션 레지던시 입주작가
 2021 대인예술시장_대인예술공간 '묘수-3기' 레지던시 입주작가
 2020 대인예술시장_대인예술공간 '묘수-2기' 레지던시 입주작가
 2019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입주작가

수상경력 2013 제 26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판화 특선 수상
 제 26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영상 입선 수상
 2012 제 25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판화 입선 수상



손연우 Son Yeonwoo (b.1992, Korea)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현대조형미디어학과 졸업
 E-mail | 92-11@naver.com
 Instagram | @sonyeonuuu

단체전 2025 일본 교류전 <OYU NO TSUKARE> (아트 & 가든 네코제, 오이타 일본)
 일본 대마도 레지던시 결과전 <CHANDELIER> (나카라이토스이칸, 쓰시마 일본)
 한평 영 아티스트 아트페어(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광주)
 다오라스테이션 프리뷰(지구발전오라, 광주)
 광주 국제판화 교류전(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2023 광주 국제판화 교류전 (민아트갤러리, 광주)
 최북미술관 4인 초대전 four-square (최북미술관, 무주)
 광주 청년미술제-2부 (자미갤러리, 광주)
 광주 청년미술제-1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
 디어마이광주 릴레이전 (마시모레지나, 광주)
 2022 월출미술인회 '영암사람들'-2부 (유스퀘어금호갤러리, 광주)
 월출미술인회 '영암사람들'-1부 (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
 2021 중·한 국제판화 교류전 '동방인' (명미술관, 중국천진)
 전국 판화가협회 교류전 '현대판화 미술제' (우연갤러리, 대전)
 청주, 광주 교류전 '세계일화' (무등갤러리, 광주)
 동아시아 판화전 '새김과 되새김' (함평군립미술관, 함평)
 2020 예술산책2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 (해동문화예술촌, 담양)
 아트광주20 '동행-예술가와 함께' (신세계갤러리, 광주)
 <화양연화花樣年華>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광주)
 2019 청년예술가의 12월 (소촌아트팩토리전시장, 광주)
 아트키카 (주안미술관, 광주)
 '한 집, 한 그림'아트마켓 (광주문화예술회관갤러리, 광주)
 예술산책 '길에서 만난 예술' (담빛예술창고, 담양)
 손연우, 윤석문2인전 '환기(換氣)'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광주)
 한전KDN갤러리 청년작가초대전 (한전KDN갤러리, 나주)
 2018 아트광주 18 영아티스트페스티벌 (김대중컨벤션홀, 광주)
 미술퍼레이드 新개미장터 (예술의거리, 광주)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노마진(Noma+jean)' (롯데갤러리, 광주)
 2015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빛으로 만나는 예쁜 세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3 한중 연합 기획초대전 '길 위의 여정' (갤러리 생각상자, 광주)
 'Korean Painting & Print' (대안공간 예폴드팡세, 광주)
 The 44th Yokosuka International Biennale Exhibition of Prints (요코스카, 일본)
 제26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수상전 (광주비엔날레전시장, 광주)

손연우의 회화; 잃어버린 순수에 관해

개인이 살아온 시간의 층위만큼이나 개인이라는 개별적 존재가 지니는 본성과 외부세계와의 간극은 대부분이 좁혀지지 않은 채 흘러간다. 각기 타고난 특징들이 사회에 의해, 결국에는 삶이라는 거대한 화두에 의해 거세되고 다듬어지는 와중에 올라오는 모종의 열패감은, 어찌 보면 나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느껴지는 부정적 감정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손연우가 목판화 작업에서 풀어낸 서사는 이렇듯 본연의 순수함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이다. 화폭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 형상은 유년의 손맛처럼 단순하면서 경직된 형태로 자리한다. 평면성을 띤 인물들은 원색의 색감에 의해 어린 시절의 감각과 유사한 감성을 불러일으키지만, 정작 작가가 언급하고자 하는 서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사람들, 풀어 쓰자면 사회화 속에서 분열된 자아에 관한 것이다. 아이들의 모습으로 분한, 얼핏 어느 동화 속의 한 장면과 같은 화면 안에서 일상의 무거운 단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인물은 뱀과 한 몸뚱어리로 따리를 튼 채 그것을 취하는가 하면, 제 몸보다 거대한 물동이를 옮기고 있는 생쥐는 가득 채운 물로 인해 위태로워 보인다. 세상에서 제일 큰 풍선을 쥐고 있음에도 이내 다른 이의 풍선에 시선을 주는 사람, 거울을 보며 애써 웃는 연습을 하는 소녀, 절벽에서 떨어지려 하는 사람의 손을 밟은 채 도움의 손길을 주는 기묘한 인물까지, 손연우는 우리 삶에서 흔하게 대면할 법한 모순되는 상황들을 통해 해석 가능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본성을 상실한 무수한 인간 군상의 모습과 그 안의 관계망을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으로 치환하면서 일종의 역설을 의도한다. 아이의 모습을 한 어른, 혹은 현실적 모순의 세계를 순수의 어법으로 기술함으로써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순수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본질을 일컫는다. 옳고 그름의 도덕적 구분이라는 사고의 지각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도 사회에 맞게 깎이고 가공되는 것으로 여기는 손연우는 근작에서 '순수악'이라는 성악설의 관점에서 사람의 본성과 사회화된 인간의 모순, 현실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한다. 소비사회의 단면과 그 안의 소외, 하늘의 달과 별을 따는 행위가 상징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 홀로 화려한 상차림을 마주하는 인물과 전파 너머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주변인 등, 작가는 감춰진 인간의 악한 본성이 사회 안에서 풀어지는 모습을 보다 다양하게 표현하려 했다. 최근의 경향은 종전보다 광의의 개념에서 상황적 접근을 의도하였지만 순수악이라는 큰 주제가 작업의 쟁점을 외려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유의 서사적 구성과 쟁점에 천착해 근본적인 상실의 원인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그가 제기하는 잃어버린 순수의 본질에는 욕망이라는 화두가 자리한다. 무엇이 되기 위해, 지키기 위해, 혹은 더 많이 갖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상황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손연우의 구작과 근작에서 읽어낼 수 있는 논점과 그 원류에는 이렇듯 하나의 키워드가 존재하는 만큼, 예리하고 응축된 주제로 작업적 서사에 일치감을 주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작품의 구조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징적인 코드와 위트로 내용을 전달하는 간접 화법과 드러나는 형식에 걸맞게 직접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설명적 화법 사이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법을 연구하는 과정 또한 선행될 수 있다면 좋겠다.

작가는 소멸판 방식의 목판화 작업에서 나아가 디지털 프린팅이나 조각과 같은 입체 작업에도 형식적 실험을 단행하며 표현 방식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나다운 형식과 스스로가 체화할 수 있는 주제일 터이다. 그만의 관찰 방식과 섬세함으로 스스로가 원하는 “감정적 소통”을 꾀할 수 있다면 좋겠다.

손연우 작가; 인간 내면의 이중성에 대하여

판화로 만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

그의 작업은 유년시절의 자신과, 성인이 된 후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신 사이의 괴리감에서 시작된다. 그의 작품은 언뜻 보면 어린 아이의 순수한 동화 이미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물들의 시니컬한 표정에서 현실 비판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아이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광대처럼 뻣뻣하게 굳어있고, 감정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들, 인간 내면에 대한 이중성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부조리 등 불편한 주제들을 '판화'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판화를 전공한 그는 나무판을 파는 것에 매료되어 판화를 시작하게 된다. 판화의 특성상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예상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지만, 그것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그의 작업은 소멸판법으로 제작되는데, 판을 파고 찍는 과정을 10~15회 반복하다 보면 원판이 남지 않는다. 원판이 없어질 때까지 찍어낸 작품에는 10~15개의 색과 레이어(layer)가 쌓이는 셈이다.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소 경험에서 작업 소재에 대한 영감을 얻어 구상을 해놓고, 나무판에 드로잉을 한다. 목공용 풀로 코팅한 후, 어두운 색을 찍을 부분부터 먼저 파서 찍고, 순차적으로 밝은 색을 찍어낸다. 총 6가지 색(흰색, 검정,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을 혼합하여 여러 색조합을 만들어 낸다. 최근에는 판화에 어두운 밀색이 올라오면서 오돌토돌한 결이 보이도록 강조함으로써 판화의 묘미를 살리는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고찰

올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손연우의 <pure evil-순수악>(2020) 연작은 성악설에 근거하여 인간 본성을 풀어내고 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보통 순수했던 시절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어린아이의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인간 본성에 집중한다. '악'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자, 인간의 본성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야기한다. 또한 작업을 통해 이러한 인간 내면세계와 소통하고 위로받고자 한다.

그의 작업은 '인간'에 대한 오랜 관찰과 고찰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인간 행동과 심리 등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탐구와 함께, 인간관계에서 경험한 감정들을 한 화면 안에 이야기를 넣어서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판화에서 보이는 원색의 화려하고 밝은 색감과 단순화된 선, 평면적 구성은 그가 바라보는 이중적 인간에 대한 반어적인 어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판화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판화적 기법을 결합한 다른 작업들도 실험중이다. 기법적인 면에서도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판화의 효과를 판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거나, 이러한 방법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등 한층 더 확장된 작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된 작품 세계와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